

산란율을 높이기 위한 육추관리 요점

박 경 재

신흥농축 대표
양평축협조합장

산란용육성추는 먹이를 주기 시작한 후부터 10주간까지의 발육이 나쁘게 되면, 그 다음 10주간에서 발육을 회복시켜 좋은 육성추로 완성시키는 것이 어렵다. 미네소타대학 데이빗 할버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산란용육성추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9가지 포인트를 서술하고 있다.

산란용 병아리의 육성에 있어서는 처음 10주간이 중요한 기간임을 우선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10주령까지의 병아리의 발육이 좋지않을 경우에, 그후의 육성기간에 발육을 회복시켜서 좋은 품질의 육성추로 키우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또, 10주령에서 품질이 좋지않은 육성추는 산란기에 들어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좋은 육성추로 키우기 위한 사양관리에 있어서 주의할 요하는 점을 들어보면 다음의 9가지 요인이다.

- 1) 체중
- 2) 부리자르기(Debeaker)
- 3) 광선
- 4) 예방접종

- 5) 사육밀도
- 6) 질병
- 7) 급이방법
- 8) 이동
- 9) 20주령시의 체중

이들의 포인트에서 첫번째가 체중에서 시작하여 9번째도 체중에서 끝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 체중은 품질기준의 하나

육성사에서 얻어지는 데이터중에서 사료섭취량, 폐사율 등에 비하여 체중이 병아리의 품질평가를 위해서 중요도가 낮은 지표로 보일지는 모르나, 이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한다.

10주령에서 12주령까지의 주령체중이 그 계종의 표준체중보다 더 적을때에는, 아마 그 육성추군은 체중을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산란기의 성적도 이 시점에서 이미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백색레그혼종 병아리의 성장지표를 12주령에서 약 2파운드(약 900g)로 볼 때, 만일 표준체중보다도 4분의 1파운드 가벼운 체중이면 사료급여개시후부터 12주령까지의 사양관리에 뭔가 결함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체중측정은 1군중 100마리를 격주로 개체별로 측정하여 기록할 것. 이 데이터는 체중 그 자체를 파악함과 동시에계군의 체중분포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부리자르기

부리자르기도 좋은 품질의 육성추로 키우는데 중요한 기술의 하나이다. 육성기간중에 올바른 방법으로 부리자르기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부리자르기를 한 후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리자르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관리 기술면에서 아무리 주의하여도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부리자르기를 실시함에 있어서 잘못을 범하기 쉬운점은 부리를 너무 많이 자르거나 너무 짧게 자르는 일이다. 잘못하여 혀를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

3. 광선관리

광선관리도 육성기에서는 중요한 기술이다. 광선관리는 왜 실시하는가를 이해하여 두어야 한다. 육성기에 있어서는 점등시간을 결코 증가시켜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지켜야만 한다. 그리고 산란기에서는 점등시간을 결코 줄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육성사의 점등시간과 산란계사의 점등시간을 같게 해주는 일이다. 사육농가의 예를 보면 육성기에 많은 시간을 점등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20주령에서 산란케이지로 이동할 때에 일조시간이 매우 짧은 계절인 경우, 점등시간이 길어지면 육성기와 산란기의 점등시간이 동조하지 못하

여 산란피크에 영향을 미친다. 육성장소에서 좋은 품질의 육성추로 키우기 위해 주의 깊게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산란계사로 이동한 후부터 점등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육성기의 노력도 쓸모없게 되어버린다.

4. 예방접종

예방접종에서는 백신바이러스의 종류, 접종방법 및 그 지역의 질병상황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계획을 세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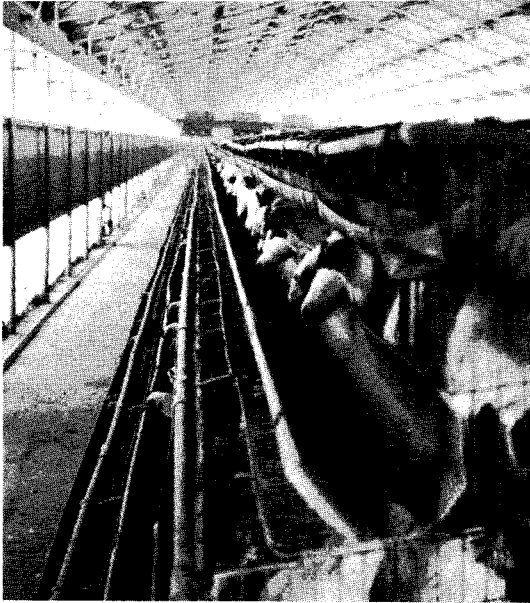
5. 밀사를 피할 것

육성기의 수용밀도는 병아리의 일령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하게 된다. 이것은 병아리가 매일 성장하기 때문에 수용밀도의 영향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밀사로 판단되어지는 환경조건하에서 육성되고 있는 병아리는 육성후기가 되어 그 영향을 받게된다. 병아리 상호간의 사회적 스트레스, 환기의 문제, 고른 급이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 계병, 특히 호흡기계 질병 발생의 위험성, 사내의 먼지, 암모니아가스 등이다. 한마리당 수용면적이 적게 되면 발육체중에도 당연히 영향이 온다.

6. 계병의 유무를 체크할 것

육성추의 질병의 유무를 체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호흡기성 마이코플라즈마, 계대성코라이자, 계대성기관지염 등의 병원체에 대해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육성추를 병원체가 잠재하고 있는 산란계사로 이동하면 질병이 발생하여 산란저하의 원인이 된다.

육성추에 항체가 낮은 병아리가 문제시되어 왔다. 육종회사, 부화장, 육성업자는 오래된 산란계사에 수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모체이행항체가 높은 병아리를 생산하고 있다.



7. 급이방법이 육성추에 영향을 미친다.

급이방법은 육성추의 완성과 관련이 있다. 육성중 사료가 양질이며 양분이 충분해야 하는 점은 물론 필요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여할 것인가 그 시기도 고려하여야 한다.

육성사내에서는 먹이를 너무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산란기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육성기에서는 칼슘의 특별한 급여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18주령부터 또는 초산 2주전쯤에서 칼슘의 급여량을 약간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 증가량은 사료중의 칼슘수준을 1%증가하든가 또는 패분을 1주간, 1,000마리에 대해서 25파운드(약 2.3kg)로 한다.

이와같이 칼슘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빨리 초산에 들어가는 육성추에 대해 칼슘을 보강하고, 대추사료는 칼슘이 부족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 주기 위함이다. 초산이 이른 육성군에 대해서는 칼슘이 부족되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뼈의 칼슘이 난각형성으로 빼앗긴다.

8. 육성추의 이동

육성추를 육성사에서 산란계사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도 있지만 육성업자에 있어서는 이동시기가 큰 관심사이다. 일반적으로는 20주령에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두번째로 이동시에 육성추의 취급방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동에 의해 육성추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미 초란을 낳은 닭도 몇마리 섞여있으므로 그러한 닭은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

세번째 점은 닭의 입장에서 본 환경의 급변이다. 그 육성추가 동일 형태의 급이거나 급수기로 육성된 경우, 이동한 곳에서 다른 형태의 기구로 급이, 급수되면 그것에 적응할 때까지는 수일이 걸리는 일이다. 이것이 체중의 손실, 성성숙의 지연, 나아가서는 산란수의 손실로 연결된다.

9. 20주령의 체중

여기서 체중의 포인트가 한번더 대두된다. 그것은 20주령의 체중으로, 이때가 되면 산란을 개시해도 좋은 상태로 된다. 이때의 체중은 각 닭의 종류별 성능지표에 나타난 체중과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20주령체중이 지표보다도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산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초산시의 체중이 적절하지 못하면 산란수, 평균난중이 낮으며 폐사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론적으로는 육성기의 사양관리 방법이 산란기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육성사내에서의 그다지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을지도 모를 많은 일이 산란기에 들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산란계는 육성기에 있어서 어떻게 육성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떻게 육성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안다면 산란기의 성적은 대략 추정될 수 있는 것이다. **영양**